

제971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10월 20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변화의 바람 불게하소서

과거 일본 기독교의 중심지... 지금은 영적회복 절실 오늘부터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 추가모집

러브소나타 군마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천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열도를(홋카이도, 큐슈지역, 시코쿠지역, 본토지역, 홋카이도 지역) 횡단하고 본토의 중심부 군마에서 열리는 이번 러브소나타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 군마는 기독교 자치단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의 활동이 왕성했던 곳이다. 일본에 기독교의 바람이 불게 한 지역이었다. 일본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믿음의 선배들도 많다. 일본 기독교 대표로 활동하며 공창제도 폐지, 여성교육 활성화에 앞장선 유야사 지로 장로가 출생한 곳이고, <회심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성서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유야사 장로는 1914년 조선을 황민화(皇民化)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인을 전도하라는 총독부의 지시를 교회가 제국주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일화는 큰 감동을 준다. 유야사 지로 장로는 최초 한글성서번역을 한 한국 기독교의 선구자인 이수정 선교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날 군마는 우찌무라 간조의 기념비가 신사에 모셔져 있을 정도로 영적침체가 심각하다.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서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일본 현지 스태프에 따르면 군마지역에서 열리는 교회 행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등 부흥예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오늘부터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금이야말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찢과 깔이 흐르던 군마의 영적회복을 위해 함께 가자. <관련기사 11면>

문의: 02-749-1149
/ 김남원 부장one@onnuri.org

신혼부부 위한 전도집회 열린다!

맞춤전도집회 '커플 LOOK'

새내기 부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진행된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전도집회 '커플 LOOK'은 오는 11월 25일(월)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주일 통합데스크, 목회지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649, 3214

/ 조유진 기자

수험생 자녀 위한 학부모 기도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오는 11월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 수능매일기도회는 오는 28일(월)~11월 6일(수)까지 매주 월~금(수요일 제외)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서빙고와 양재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장소는 서빙고 누리홀(월, 화, 목, 금), 양재는 비전홀(월, 화)과 온유홀(목, 금)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 마니기도회로 통합되어 진행된다(오전 9시15분~10시30분, 서빙고-꿈아이 홀/양재-화평홀).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CGNTV, 유튜브 채널 오픈

CGNTV가 북한선교와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CGNTV 블레싱 한반도'를 오픈했다. 이 채널은 CGNTV가 방영하고 있는 탈북민 토크쇼 '반갑습니다', 민족을 위해 부르짖은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 하용조 목사가 했던 탈북민에 대한 설교, 탈북과정과 북한지교회회를 배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방법은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블레싱 한반도'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유튜브 어플에서 'CGNTV 블레싱 한반도'를 클릭하면 된다.

/ 김남원 부장one@onnuri.org

온누리장로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온누리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월28일(토)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와 세라핌 합창단이 특별출연한다. 공연은 무료.

7차 선교사 파송

보배(갈렘) - 남아시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보아스나오미(이삭장기) - 남아시아:북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유애복(사사대사) 사랑, 믿음(장기) - 남아시아: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다윗(한나선, 준(장기) - 남아시아:북

자녀들의 건강 및 적응에 어려움이 없으며, 예배자로 바로 설수 있도록

정직한(정결한) 한음(장기) - 아시아:북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장기) - 남아시아:북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도록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다윗,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과 가정, 교회가 강대해질 것입니다.

삼상 5:1~12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이유는 믿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를 믿는다면 계약이나 약속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약속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믿음은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나타내주십니다.

타락 이전에는 약속이 필요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생긴 것은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고, 불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믿음이 깨진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등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비전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십대시절 자신이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7세가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을 거둬내고 참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상황만 바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상황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20년 가까이 도망자 생활을 했고,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블레셋에서 망명생활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준비 시키셨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진 태도

다윗은 세 번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왕

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북쪽 열한 지파 지도자들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점진적으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들의 선택을 동시에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관심을 갖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 앞서 나가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동시에 기다림의 과정에서 해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왕이 되기까지 중요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한 그 어떤 정치적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고 충실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만 ‘드디어 내 꿈이 이뤄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 7년 6개월을 또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고통이 아닌 사명에 충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다윗

둘째, 다윗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는 분명 기회였습니다. 보통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

뻐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자 큰 슬픔에 잠깁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까지도 슬퍼했습니다. 사울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에게도 추모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동안 슬퍼한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초로 자신의 미래를 쌓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일처럼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

북쪽 열한지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촌동생이었던 그는 명목상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왕으로 세우고 실제로 자신이 북쪽 열한지파를 통치했습니다.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이 북쪽 열한지파를 통치하기 위해 이스보셋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북쪽 열한지파가 망할 것 같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보전하기 위해 다윗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넬을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살해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신의 형제를 죽인 복수를 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열한지파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력자를 다윗의 신하가 죽인 것은 정치적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까지도 슬퍼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

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까지도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복수로 이어지고, 권력다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 다. 그는 아브넬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의 남다른 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아직 낮이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든지 뭐든지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 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 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 다”(삼하 3:35-37).

만약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가 정치적인 의도로 아브넬을 죽이라고 시키지 않았는지를 오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의도나 전략적으로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던 권력자중 한 사람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순수함을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다윗

셋째,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용해서 욕심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사울이 죽은 모습을 발견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 등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전쟁 중에 사울이 중상을 입어서 자신에게 죽여 달라고 해서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다윗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노합니다. 감히 기쁨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하며 아말렉을 죽입니다.

북쪽 열한지파를 다스리고 있던 명목상의 왕, 이스보셋을 그의 신하 레갑과 바야나가 암살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이었다면 보상을 하고 칭찬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징벌을 내립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징벌을 내립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겠다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냉정합

니다. 심지어 아브넬을 죽인 자신의 군대장관 요압도 저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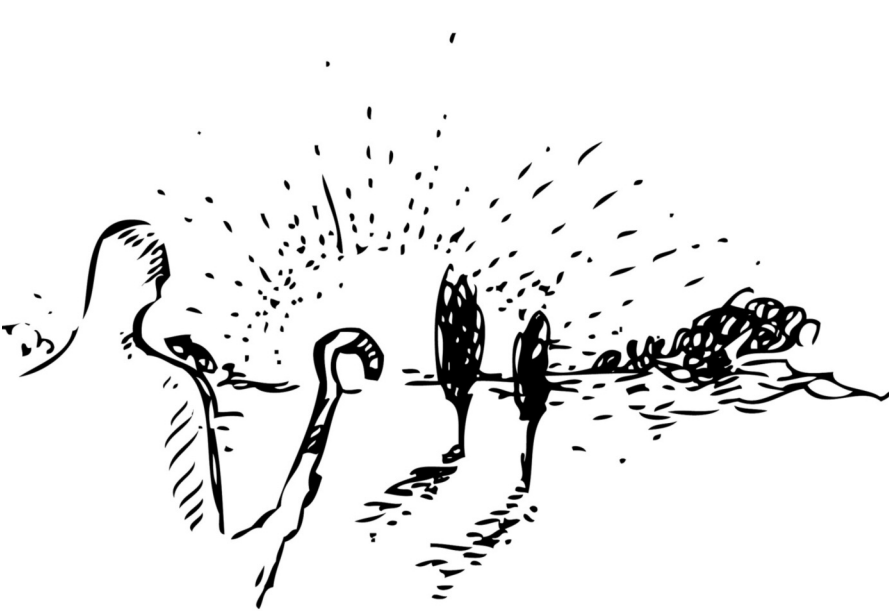
다윗은 충성을 가장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권력다툼과 세력다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악이 필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절).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위기에 처하기까 그때서야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진 것입니다.



은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원수의 죽음까지도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는 마음, 왕위에 오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마음, 불의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서로를 멸망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에게 기쁨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유언을 통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여, 네가 네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창 49:8).

아담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유다지파에게 절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다윗에게서 이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유다지파의 자손인 다윗,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세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대해지십시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10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대해진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강대해진 것입니다.

믿음의 강함은 고집과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집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집은 겉으로 믿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처와 분열, 다툼을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 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옳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의입니다. 자기 주관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대해지십시오. 내 생각과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대함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온 이스라엘을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해질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다윗이 강대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가정, 교회가 강대해질 것입니다.

강대함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강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소서.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시듯 우리를 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yje



주님 안에서 ... 활짝 핀 웃음꽃

해외비전교회 교역자와 비전위원들이 지난 10월 14일 송추 휘바 카페에서 소통과 친교를 위한 '2013

Acts29 비전 올림픽'을 개최했다. 웃음꽃이 만발한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주님 안에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목회자 아카데미 오픈

일대일 목회자 아카데미 22기가 오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5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대일 아카데미는 일대일 제자양육의 핵심내용과 교회에 정착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과정은 실질적인 나눔훈련과 교회 정착을 위한 방법론 연구를 강화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전문강사진의 강의로 이뤄지며,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에 교회에 도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및 양육자로 훈련 받기 원하는 평신도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2-2078-3278, 3456)

/ 조유진 기자

22기 이혼자행복학교

일시: 11월 2일~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9시30분(서빙고 두란노홀)

신청자격: 이혼 위기 및 별거중인 부부, 이혼한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 이혼자초등4년 이하 자녀

프로그램: 성인 대상 및 어린이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록비: 성인 10만원(식대, 교재포함), 어린이 3만원

문의: 김난순 팀장 010-2243-1013, 나 지원 총무010-3489-2080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00기

내용: 성경안에서 하나님 가정, 피플과 즐, 가계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부대화, 화해, 분노와 용서, 자녀교육 등

일시: 10월 28일~11월 16일 12주 토요일 오후 2시~주일 오후 6시까지, 4주 토요일 오후 2시~8시 / 장소: 진셋골
회비: 부부당 3만원(자녀 1인 1만원 별도) 접수: 하가훈 총무 010-4117-045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게요!

예배의 은혜 체험하는 '온누리에배학교'



지난 17일(목) 서빙고 비전홀에서 온누리에배학교 주중반이 개강했다. 40여 명이 참석한 첫 시간은 ▷찬양-정장철 목사 ▷기도-정광렬 장로 ▷강의 ▷조별 나눔 및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배의 의미와 목적, 원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김영진 목사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가 아닌 '예배자'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3일부터는 온누리에배학교 서빙고, 양재 주말반이 새롭게 개설된다.

문의: 김항준 팀장 010-3735-8824(서빙고), 유제홍 간사 02-570-7437(양재)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주님의 '거룩한 신부' 꿈꾼다

인투, 싱글즈 직장인훈련학교

"성경에 근거한 INTO의 7가지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왜곡된 자아상의 원인이 되었던 상처를 치유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인투 싱글즈훈련학교'가 열린다. 싱글즈훈련학교는 오는 11월 5일(화)~12월 10일(화)까지 서빙고 성전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자아상 회복을 원하는 싱글 및 직장인, 청년, 대학(원)생 등이며(기

혼자 가능), 김중원 목사, 하신주 선교사, 이인호 목사, 성명자 집사가 강의를 맡는다. 주요 커리큘럼은 1주차 '어두움에서 빛으로'를 시작으로 ▷나는 누구인가? ▷거짓된 가치관(8가지 성경 유형) ▷정육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영적전쟁 ▷올바른 가치관 등이 다. 회비는 12만원.

문의: 02-3215-3651, 010-5296-0884(임호진 간사), www.into7.net참고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개최

10월 29일부터 '기독교 미술 50인 50색'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KCAF(Korean Christian Art Feast) 전시'가 오는 10월 29일~11월 12일까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전시실 2층에서 개최된다.

오는 10월 29일에는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개최예배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개최예배는 기도, 설교, 내빈소

개 및 인사, 타이프 커팅과 작품 감상, 만찬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KCAF 2013 운영위원회 주최로 '기독교 미술 50인 50색'으로 50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부스에 전시하는 형태로 열린다. 전시장 내부에는 작가별로 부스 50개가 설치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청진기 들고 피지섬으로

시드니 온누리, 의료선교

시드니 온누리교회 이웃리치팀이 지난 10월 2일 피지로 의료선교를 갔다. 시역지는 비포장도로를 달경거리며 달리는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이곳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 당뇨, 충치, 양성 종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교실에 마련된 접수대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차례대로 치료를 했다. 한쪽에서는 두 명의 팀원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성경이야기를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500개의 치약과 750개의 칫솔을 나눠줬고, 1012개의 구충제도 전달했다.

디모디 추장은 "매년 큰 사랑을 베푸는 시드니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다.

/ 홍관희 집사

43기 내적치유학교 열린다

파주제자교회 수양관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의 상처와 쓴 뿌리가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품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는 시간, 43기 내적치유학교가 열린다.

이번 43기는 오는 25일(금)~27일(주일)까지 파주 제자교회 수양관에서 진

행된다. 프로그램은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 아버지의 마음, 용서, 십자가, 영적전쟁 등이며 손정훈 목사가 담당한다. 신청은 아이스쿨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회비는 12만원.

문의: 장성란 010-5072-5004, 강춘화 010-3685-6659, 배은정 017-339-3637

/ 조유진 기자

파워 넘치는 예배자 모집

청소년 예배 시역 공동체 파워스테이션에서 함께 할 예배자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일렉기타, 세컨드반, 보컬 등이다. 오디션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28일까지 지원서와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유승아 전도사(010-4399-1064)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영원한 친구 ‘예수님’ 사랑합니다”

홍천, 남춘천 지역교회 연합집회...윤형주 장로 간증집회로 열려



“남은여생 동안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 손잡고 승리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지난 15일(화)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와 윤형주 장로를 초청해 연합집회를 열었다. 춘천성광교회에서 열린 연합집회는 홍천과 남춘천 지역 교회의 성도와 새신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라도 고창, 경상도 남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농어촌 연합집회는 새신자 전도와 지역 교회의 연합, 농촌 목회자 격려 등의 취지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번 집회는 지난 한달 전부터 춘천성광교회, 유치리교회, 반석교회, 강촌교회, 신촌교회, 무궁화교회 등 참석교회가 모여 기도로 준비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170여 명의 성도와 새신자가 참석한 이번 집회는 윤형주 장로의 간증과 찬양으로만 진행됐다. 그는 살아온 이야기와 삶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고 그의 간증을 찬양으로 노래했다. 유명세를 타고 화려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작 그 마음은 허망했고 그 때 평안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렇게 120분 동안의 울고 웃는 감동과 은혜의 무대가 장식되었다. 집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했고, 참석자 90% 이상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윤 장로의 영접기도를 따라했다.

홍천 서면의 무궁화 교회에서 온 문경옥 성도는 “남은여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

한편 농어촌선교회는 오늘(20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바자회를 연다. 국수, 어묵, 떡볶이 등 다양한 먹거리와 땅콩, 된장, 호두 등 농촌에서 직접 올라온 농산물을 판매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지난 15일 춘천성광교회에서 열린 연합집회에서 무궁화 교회 이성준 담임목사(제일 오른쪽 끝)와 성도들이 집회 후 하트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다.

〈인터뷰〉



온누리교회와 같이 대형교회의 후원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농어촌선교회 팀에

“시골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평신도 출신으로 7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강촌으로 내려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골교회를 목회하다보니 온누리교회와 같이 대형교회의 후원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농어촌선교회 팀에

서 윤형주 장로님을 연결해주시고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 전도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 박우진 목사(강촌장로교회)

이곳이 우리가 섬길 선교지!

양재 권사스쿨, M센터 방문

양재 권사스쿨에서 진행 중인 와이미션에서 지난 15일(화) 온누리M센터를 방문했다. 146명의 양재 권사들은 순창 남 선교사의 타문화 이해에 관한 강의와 김영철 목사(온누리M센터)의 M센터 사역소개, 주변지역 탐방과 각 나라별 음식을 체험했다. 순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

라 M센터와 같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전도하는 것이 곧 선교이다”라고 말하며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 김은 권사는 “이론으로만 듣다가 직접 와서 경험하니 아주 믿는 선교에 대한 중요함이 더욱 와닿았다.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세 부적인 기도제목을 세워 계속해서 중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드림챔버, 선교찬양합창제 특별출연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가 지난 10월12일 오후 5시 서울 방배동 소재 방주교회에서 평양노회가 주최한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찬양합창제에 특별 초청을 받았다.

이날 온누리드림챔버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의 콘서트 아리아 ‘기뻐하라 환호하라’ 중 ‘알레루야’ 외 1곡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제5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11월 7일 양재 기쁨홀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

한국가정사역협회가 주최하는 제5회 가정사역컨퍼런스가 오는 11월7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랑의 언어 5가지>의 원자자 게리 패프먼과 에릭 갈시아(미국 가정사역협회장)를 초청해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다. 화비는 10월 4만원, 11월 과당일은 5만원.

문의: 031-410-1366

바이올라 대학 입학 설명회

미국 기독교명문 바이올라 대학교 2014년 봄 학기 입학설명회가 오는 10월 22일(화)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개최된다.

바이올라 대학 2014년 봄 학기 입학생 모집과정은 토플(TOEFL) 성적 없이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맞춤형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한다.

문의: 02-570-739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세상의 빛과 초막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이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신다.

초막절 8일째, 즉 ‘쉬미니 아페레트’ 절기는 7일간 기념하는 초막절과 바로 이어지는 날에 불과하지만, 단순한 초막절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의 구별되는 절기로 인식되었다. 이 날 밤새도록 여인의 뜰에서 하던 ‘관제의 축제’와 관련된 선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것은 지난 호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세상의 빛’ 선포는 초막절 8일째 하던 또 다른 행사인 ‘빛의 조명’을 배경으로 한다. 빛의 조명은 성전 내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있는 촛대의 불을 밤새 환히 밝히는 것이다. 성소 안에 있던 촛대가 7개의 가지로 된 것과 달리 여인의 뜰에 있던 촛대는 5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불은 나이 어린 소년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올리브기름을 채운 주전자들 부어 붙였다.

평소에는 꺼져 있던 여인의 뜰 네 모퉁이의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까지 환히 밝아졌다고 한다. 성전에서 밝히는 4개의 촛대만으로 예루살렘의 집들을 구석구석까지 밝힌다는 것은 분명 과장법적인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성전에서 타오르는 빛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의 마당까지 밝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에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초막절 8일째에 밤새도록 여인의 뜰에서 밝혀진 4개의 촛대는 동쪽 광야 쪽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행객(순례객)들에게 밤하늘의 등대와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초막절 8일째에 여인의 뜰에서 밝히던 ‘빛의 조명’ 행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성전의 빛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집들이 밝혀지듯이,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던 죄악은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한 빛을 인식할 때 어떻게 감히 다시 어두운 구석에서 간음의 죄악을 범할 수 있단 말인가? /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강 동

묵상의집에서 열린 예수님의 특별 초대

가족, 친지 위한 맞춤전도집회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가을바람과 함께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지난 10월 12일(토) 청량한 하늘, 붉게 물든 나뭇잎, 시원한 가을바람이 술술 부는 남한산성 묵상의집에서 강동 캠퍼스 맞춤전도집회 ‘특별한 초대’의 문이 열렸다.

한자리에 모인 반가운 얼굴들

“환영합니다. 몇 조세요?”

수 시간 전부터 챔버, 데코, 중보기도 등으로 맞춤전도집회를 준비해온 강동B공동체 스테프들의 환영 인사와 함께 초청 대상자들이 하나둘씩 묵상의집 야외공원에 모였다.

자극하게 나이가 드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 아들, 시부모님을 모시고 온 며느리, 처남과 함께 온 매형 등 60여 명의 대상자들이 이번 행사에 함께했다.

“나비쇼핑몰에서만 보다 이곳에서 보니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위치한 곳인 나비쇼핑몰 내 상인 네 분도 특별한 초대의 문을 두드렸다.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챔버팀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 오후 12시부터 시작된 1부 행사는 점심식사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의 점심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한 출장 뷔페. 1시간 40여 분 동안 초청 대상자들은 가족,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식사를 만끽했다.

2부를 장식한 공연과 간증

방송인 이지희 자매의 사회로 문을 연 2부 행사는 세계적인 바리톤 김호배 형제의 >오페리 피가로의 결혼(더 이상 날지 못하리) >어느 멋진 날에, 서빙고 온누리 챔버팀의 관현악 5중주 >가브리엘 오보에 >The Prayer 등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게스트는 탤런트 이광기. 그의 특별한 간증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 자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이광기는 자신의 신앙과 15년 만에 무명에서 벗어나 연기상을 받았던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고난은 결국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 될 것이다”고 확신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의 간증을 듣는 참석자들도 1시간 동안 이어진 가슴 절절한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진품 사랑 만나길

3부, 결신의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의 결신에 앞서 최원준 목사는 “10월의 멋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진품 인생으로 바꾸실 놀라운 하나님의 진품 사랑을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선포했다.

강동B공동체의 김영수 이해영 부부는 시부모



님과 형님, 조카까지 가족 네 명을 이 자리에 초청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해 참석여부가 불투명했는데 다행히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기뻐한 이해영 성도는 “맞춤전도의 품격이 느껴진 완벽한 시간이었다. 다른 분

들이 이 모임을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올 한해 꾸준히 맞춤전도집회를 진행해왔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인/터/뷰 ■ 돕는 아이들, 전도집회에 초청한 이선주 집사(강동B공동체)



“아이들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하라고요. 그것이 오늘 맞춤전도집회였어요. 아이들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강동 맞춤전도집회 특별한 초대에서 만난 이선주 집사의 고백이다. 미술학원 원장인 그가 특별한 초대 18살 여고생 두 명을 초청했다. 그는 가족, 친지가 아닌 보육원에서 만난 딸 같은 아이들이라고 했다.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래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보육원 명진들꽃사랑마을. 이선주 집사가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가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120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버려진 아이들이다. 부모가 길가에 버려 수액을 맞고 큰 아이들도 많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다 온 아이들도 적지 않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고 고민 상담과 취업 상담으로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것이 이선주 집사가 주로 하는 일이다.

“사실 공활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돈을 갖고 하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활사역은 기도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가 한 고백처럼 그는 명진들꽃사랑마을을 섬기며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다.

그와 함께 특별한 초대를 찾아온 한 아이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그때 처음 아버지가 나타나 중간에 합의금을 가로챘다. 그때 상처를 받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보육원에 있으면서도 반장을 한 번도 놓치지

“두 아이 손 붙잡고 즐겁게 왔습니다”

않았던 아이인데 안타까움이 컸다. 작년에는 중학교과정 검정고시에 붙었지만 올해에는 아쉽게도 고등학교과정 검정고시에 떨어져 퇴소를 하게 됐다. 일정기간 머물던 아이가 퇴소하면 받는 정부보조금 5백만 원만으로는 자립하기가 어려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선주 집사는 강동B공동체 감사한다라방에 그 사정을 알렸고, 다락방의 한 순모가 파크리오맘엄마들이 정보교환과 물물교환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셜네트워킹에 알렸다.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느껴

아이의 사연을 듣고 엄마들이 힘을 합쳤다. 이불, 그릇, 냄비, 서랍장 등 후원물품들이 들어 오기 시작했다. 그 물품들을 이선주 집사는 자신의 카니발 차에 실어 날랐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밥하고 빨래하는 법, 살림하는 법도 몰랐다. 이선주 집사는 냉장고 사용법에서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며 아이가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일자리를 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한 일주일, 아는 사람을 통해 병원 원장님을

소개받아 병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일을 구하게 됐다. 나중에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도로 돕게 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전도집회에 초청되어 온 두 명의 아이에게는 이 집사가 조건을 걸었다. 그동안 도와주었으니 이 정도는 해달라는 것.

“그냥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와서 즐겁게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렴” 했더니 흔쾌히 웃으며 따라오더라고요”

다음 날(지난 13일) 이 집사는 강동 공활사역에서 섬기고 있는 고아원으로 갔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다. 개인 후원자를 구하고 있던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후원자의 연락을 받았다. 그 후원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다.

“신기하게도 제가 입만 열면 돕는 손길이 나타나요. 제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돕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공활사역은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부 천

사도바울의 흔적 찾아 떠나다

여성사역 아웃리치

부천 여성사역에서 지난 9월 23일~10월 2일 9박10일 동안 중동A국과 그리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사도바울의 흔적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간 16명의 아웃리치 팀원들은 이번 일정을 통해 사도바울의 눈물과 열정을 온 몸으로 경험했다.

한 눈에 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

이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현재 97%가 무슬림인 중동A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지역 및 지하 5미터 깊이의 8층 규모의 지하도시를 탐방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았고, 해가 뜨지 않는 지하 동굴에서 일생을 보낸 신앙고백의 흔적을 엿보기도 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에베소,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사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지역도 방문했다. 과거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였지만 지

금은 무성한 잡초 위에 남아 있는 돌무더기와 로마시대 양식의 기둥들만 남겨진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스에서는 음란한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고린도의 옛 유적지를 방문했다. 고린도의 화려함과 타락한 도시의 일상을 한 눈에 보면서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교회를 바라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테네에서 난민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911테러 이후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리스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상당수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감탄했다.

아테네에서 출발해 베뢰아와 테살로니카를 거쳐 빌립보를 방문했다. 유럽 선교의 출발지인 자비율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보 간기테스(Gangites) 강가에서 성찬식을 했다. 소박한 강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진행된 성찬식에서 어린 아이처럼 순박하게 서 있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스쳤다.



부천 여성사역이 지난 9월 23~10월 2일까지 9박10일 동안 중동A국과 그리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선교사 가족과의 교제

마지막 방문한 지역에서는 이제 막 사역을 위해 발을 내디딘 선교사 가족을 만났다. 매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애잔(무슬림들의 기도소리)과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수많은 모스크에 둘러싸인 무슬림 지역 선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두 분의 긴장된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팀원 중 한 분이 후덕한 웃음을 지으며 세뱃돈을 주듯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용

돈을 쥐어주는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바울의 흔적을 더듬어 본 짧은 아웃리치 여정을 통해 고목처럼 버려진 땅에서 움트는 생명의 씨앗을 보았고, 그곳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또한 복음의 빛진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문난희 자매
(부천 여성사역)



인 천



인천 온누리 전 성도들이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한마음이 되어 기쁨의 교제를 나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한 가족!

차세대, 대청, 성인 함께한 전교인 체육대회

인천 온누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지난 주일(13일) 인천 해사고등학교에서 열렸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차세대, 대청, 성인 등 모든 성도가 교제를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체육대회에는 488명의 성도와 이전에 인천 온누리를 담당했던 손신국 목사(단동 온누리교회)가 참석해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영육 간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대회 시작에 앞서 에베소서 3장 5-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이준호 목사(인천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인천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길 바란다”며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체육대회에서는 인천 A, B, C 세 팀으로 나뉘었으며, 대청, 차세대도 각각 인천 A, B, C로 들어가 한 팀을 이루며 게임에 임했다. 또한 각 공동체와 순에서 밀반찬, 부침개, 고기, 국 등을 준비해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눴다. 인천 성도들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성인, 대청, 차세대가 세대 간의 벽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양 지

차세대 꿈땅, 제자훈련 One-day 아웃리치

온누리 노인요양센터 방문

차세대 꿈땅에서 지난 4~10월까지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이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12일(토), 용인 온누리 노인요양센터에서 One-day(원데이) 아웃리치 섬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을 마쳤다. 이번 제자훈련에 참석한 꿈땅 아이들은 6개월 동안의 훈련과정을 통해 QT와 전도, 이웃을 섬기는 방법 등을 배웠다.

이날 온누리 노인요양센터를 찾은 어린이들은 어르신들과 산책을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섬겼다. 또한 한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 위해 침상에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 드리기도 했다.



차세대 꿈땅 어린이들이 온누리 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섬겼다.

김하은 어린이(초등학교 5학년)는 “성경을 읽어 드리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천예빈 어린이

이(초등학교 3학년)는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합시다!”

박수웅 장로 초청, 자녀교육 세미나

지난 9월 29일(주일), 박수웅 장로 초청 ‘자녀교육 세미나’가 박승철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전교인 수련회에서 진행된 부부관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성경적인 자녀양육에 관심이 있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박수웅 장로는 자녀교육에 대한 철학 및 노하우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로는 부부관계부터 자녀양육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참석한 성도들은 “가족 회



복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가정예배가 자녀교육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남양주

순교, 박해 ... 치열했던 복음의 현장에 가다

75여 성도, 1박2일 국내성지순례
양화진·제암리교회·해미성지 등 방문

여행하기 정말 좋은 화창한 가을에 남양주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10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이다.

약자지킬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출발했다.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에 머물렀다가 돌아간 이후, 대원군이 대항하지 못한 치욕과 한풀이로 천주교인들의 목을 쳐 그 흐르는 피로 나뭇터를 씻으라고 명했던 당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잠두봉(절두산)을 시작으로 우리의 순례여행이 시작되었다.

순교자들의 땅을 밟다

죽어서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묘원으로 건너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건너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병원을 건립한 이야기와 많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고 학교를 세워 의식을 깨워주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헌신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을 생각하니 정말 고맙고 귀했다. 조용하게 그때의 상황과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화성군 제암리에 위치한 제암리교회와 31운동 순국기념관으로 달려갔다.

이곳에서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 학살당한 한국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신자들을 교회에 모아 놓고 문을 폐쇄한 후 불을 지르고는 무차별한 총격으로 교인들을 죽였다고 한다. 나라 잃은 설움과 하나님을 믿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했다. 주메뉴보다 따라나온 반찬이 더 맛있는 코다리

식사를 한 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충청도 해미성지와 해미읍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해의 현장을 둘러보다

해미성지는 한국인이 교인들을 처형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그림과 영상 그리고 조형물을 통하여 그때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형방법은 무섭게도 다양했다. 교수형과 참수형, 물매질, 석형, 백지사형, 동사형 등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처형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이는 돌다리 위에서 교인들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서 매치는 자리개질로 죽였는가하면 여러 명을 눕혀놓고 돌기둥을 떨어뜨려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였고, 시체 처리의 간편함을 위하여 산사람을 수십 명씩 생매장시키고, 또 신자의 몸을 돌과 함께 쪼개 묶어 '돌방'의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등 참으로 소름끼치는 박해의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순교 당했던 사실 앞에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다.

해가 저물어 우리는 대안에 위치한 천리포 수목원에서 하루의 피곤함을 풀었다. 천리포 수목원은 미국인 한 사람이 벌거벗은 산에 갔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든 것으로 그의 일생을 바친 수목원이다. 그는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했을까? 잠시 궁금해졌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양지에 자리한 충신대학교로 갔다. 그 곳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있다. 물론 이곳은 북한에 있는 소래교회를 그대로 복원하여 다시 지은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



하고 열정을 다해 기도를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섬겼던 개척교회가 생각이 났다. 밖으로 나와 다 같이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마치 막으로故하용종 목사님의 묘소 참배를 했다. 하 목사님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돌아보는 것을 끝으로 우리의 국내 성지순례 일정을 마쳤다. 참으로 유익한 여행이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을 품은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어느 한 나라를 품으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능력주시면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하리라.' 그리고 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해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이웃일을 먼저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섬방하기로 항상 중보하고 그렇게 조용히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다짐한다.

/ 김경숙 집사(남양주 캠퍼스 구리공동체)



수원

JDS 저녁반 졸업

지난 5일 졸업식, 40명 수료



예수제자훈련학교(JDS) 수원 저녁반이 종강했다. 지난 10월 5일(토)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40명의 성도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JDS 수원 저녁반은 지난 3월 2일 열린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 토요일마다 진행되어 왔다. 올 여름에는 캄보디아와 피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 정지은 기자 jj@onnuri.org



아름다운 동행

COUPLE COACHING PROGRAM

동행

아름다운 동행 하고 계십니까?

참가자들, “우리집이 피난처이자 안식처” 고백 가정사역 ‘아름다운 동행 132’ 기 수련회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삶을 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과 결혼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된다. 예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담대하게 서약하면서 말이다.

우리부부도 남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고 어느 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가부터 의견충돌이 일어났고, 그 상황을 무심코 넘기는 것을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고는 언제 그랬나 듯이 외식을 하러 갔다.

그런데... 외식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막힌다

는 이유로 또한번 대형 부부싸움을 했다. 짜증이 난 이유는 분명 복잡한 교통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가상의 적으로 보고 싸움을 했다. 누가 보면 민망할 정도의 치졸함과 유치한 싸움이었다.

“당신의 부부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대형 부부싸움을 한 주인공은 가정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 사역을 섬기고 있는 임향재 목사 부부다.

임 목사 부부는 미국유학 시절 수없이 많이 다룬 실적(7)과 신학대학원 시절 가정사역을 전공

하면서 익힌 이론들을 묶어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3년 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수련회를 열어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도록 돕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에 참가한 성도들의 사연은 각각 각색인데, 요약하면 유치하고 치졸하게 굴면서 싸운 이야기들이다.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한 이유다.

부부코칭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132기 수련회’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새골 온누리교회 사랑의 집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동행 132기에는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부부를 비롯해 28가정이 참가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 부부 사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좋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참가한 여덟 쌍의 장로부부들이 인상 깊었다.

더욱 깊고 넓은 사랑 재확인

수련회 첫 날, 부부의 성격과 방어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Finding Self 코너. 조별 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하면서 부부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나누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임향재 목사는 미국이민 시절 실타래처럼 꼬인 부부관계를 풀지 못해 처절하게 싸움을 했던 기억을 간증했다.

둘째 날, 가상의 임종을 앞두고 배우자를 위한 유서 쓰기 및 발표하는 시간. 그동안 살면서 종종 원수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후회되었다. 지난날을 반성을 하면서 부부들은 더욱 깊고 넓은 사랑을 재확인 했다.

/ 글 송중환 장로, 사진 김경선 장로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코칭프로그램으로 매학기 10주 동안 강의 및 조별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등록방법: 매학기 I-School에서 신청
회비: 가정 당 10만원
문의: 이은호 총무 010-7744-6906



◀아름다운 동행 사역을 섬기고 있는 임향재 목사 부부.

간 증



“놀랐고,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부부가 돕는 배필이라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 또 자녀들에게나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겠다며 제 편에는 열심히 애쓰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나의 관심과 배려가 전적으로 내 중심이었고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의로만 살아왔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면서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크게 놀랐

고 감동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우리집이 참 피난처이며 안식처라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부부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4

세상과 함께 눈물 흘린 온누리

가시밭에 날린 예수향기 ‘그옥함 영원히’

1988년 하용조 목사와 장로 몇 사람이 미국 맨해튼을 방문했을 때 천주교 수사들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다. 귀국 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한 성도의 헌금으로 ‘예수향기회’가 탄생했고 몇 년 뒤 어느 부부가 이 지역에 적극 나서면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원도 쇄도하였다. 장소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효창공원으로 택했다. 그리하여 94년 8월 28일부터 노인 2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첫날 버스에 밥을 싣고 갔을 때는 “교회 밥은 절대 안 먹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노인들이 상당수였다. 봉사자들은 “저희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밥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설득했고, 이후 몇 개월간 말쑥 없이 밥만 대접했다.

사역 초기 이른바 ‘컨테이너 사건’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화자되고 있다. 94년 11월 중순쯤, 밥을 먹기 위해 노인들 20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담벼락에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당시 진용환 집사는 용산구 청장을 찾아가 컨테이너를 놓게 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그러나 구청장은 불가 입장을 보였다. 며칠 후 진 집사는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받고 이제는 시장길로 가서 눈물로 호소했다. 그날 저녁 구청장이 직접 찾아와 허락을 했다.

예수향기회의 활약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다. 1995년 6월 30일 일어난 삼풍백화점 참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희생자 중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도 있어 교인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무려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삼풍백화점 참상이 ‘부패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타락한 세상에 기인한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밖으로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자하는 뜻에 먼저 초점을 맞췄다.

온누리교회는 아비규환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죽지 않은 믿음의 징표를 나타냈다. 당시 구조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 중의 하나가 구조대원들의 식사 제공이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온누리교회에 협조 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대책회의를 가진 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삼풍 사고 봉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집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23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하여, 2개의 대형 천막 아래에서 2천여 명분의 식사와 간식, 야식 등 하루 다섯 끼를 24시간 제공했다.

예수향기회는 2001년 7월 천사의 날개를 접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향기회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예수향기회가 모태가 되어 온누리복지재단법인이 탄생했다. 온누리복지



2003년 2월 대형 교역자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는 희생자들을 방문해 위로했다.



1994년 8월 28일 효창공원 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한 예수향기회. 7년 동안 2만 여 자원봉사자가 40여 만명의 식사를 섬겼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예수향기회의 뒤를 이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온 세상을 위한 교회’를 표어로 내건 2005년 1월, 대한청년연합은 스리랑카를 덮친 쓰나미지역을 방문해 방역,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재단은 2002년 4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원을 시작으로 2005년 8월에는 중풍, 치매 노인들을 위한 동부노인전문요양원, 2006년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양지 온누리요양센터를 개원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청파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하면서 용산구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및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2002년 11월 학업 및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군포 하나로 청소년 센터를 개원했다. 또한 1999년 8월에는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변동 코이노니아의 문을 열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누리 희망밥차,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자연치료센터 및 농업실습지, 온누리 가족 나무동산 등을 운영하며 예수향기를 흘리고 있다.

램프온(LAMP ON), 세상에 희망의 빛 비추다

2003년 7월 18일 새벽 하용조 담임목사는 성인사역, 여성사역, 대청연합, JDS, 의료선교팀 등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팀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누리긴급재난구호팀 출범의 당위성

을 설명하고 행동 양식과 비전을 선포했다. 하목사는 “재난이 일어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긴급하게 구호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온 세상을 향한 교회’ 온누리교회 당회운영위원회는 온누리긴급재난구호팀을 상설기구로 출범시켰다.

온누리긴급재난구호팀은 이후 ‘LAMP ONNURI’ (이하 LAMPON, 램프온)으로 거듭난다. LAMP(Love And Mercy, Peace) ON은 Acts 29 비전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인류가 겪고 있는 재난을 돕고 그들의 이름에 동참해 온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재난구호팀을 의미한다. 램프(LAMP)는 온 세상을 향해 비추는 등불을 의미하고, 긴급재난을 상징하는 사이렌과 같은 비상 신호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지구촌 어느 곳이든 긴급 구호가 필요한 곳을 향해 신속한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는 LAMPON의 전략을 담고 있다.

램프온은 2010년부터 긴급재난구조기구에 서상시지역체제로 전환하면서 명실상부한 대사회 봉사기구가 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한 준비로 2009년 12월 12일 강원도 정선 하늘문교회에서 ‘카지노 장기체육자와 함께하는 사랑 콘서트’가 개최됐다. 램프온

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와 협력해 카지노 지역인 강원도의 도박중독 장기체육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봉사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영적재난상태인 강원도 땅에 사랑의 콘서트와 의료선교를 통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강하게 선포되었다.

2010년에는 램프온의 사랑의 빛은 해외로 비추어갔다. 1월 12일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섬 나라 아이티에 700의 강진이 발생했다. 확인된 사망자 수만 1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티 땅에 세계 각국의 구호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램프온도 한지에 파견돼 구호활동을 펼쳤다. 1월 24일은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약사로 구성된 램프온 긴급구호팀이 아이티에서 매일 3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램프온의 출범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 계획이자 은혜였다. 의료는 선교의 접착점이다.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온누리교회는 21세기 사회봉사가 없이 선교할 수 없다. 램프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접점이다. 사회봉사와 의료로 통해 온 세상에 ‘여호와 라파(치유하시는 하나님)’를 외치는 램프온의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결기대회

군마는 지금 러브소나타얹이 중

현지 성도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

지난 10월 14일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리스도교회에서 러브소나타 군마 결기대회가 열렸다. ‘함께 일어나다’는 뜻을 가진 결기대회인 만큼 대회에 참석한 21개 교회, 114명의 성도들의 각오가 결연하다. 군마 러브소나타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집회에 대한 기대, 군마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갈망이 엿보인다.

군마 러브소나타를 한 달여 앞둔 군마 현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군마지역 교회 행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고, 러브소나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집회에 대한 설렘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현지 스태프들은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다.

이날 결기대회에는 송솔나무 형제가 특별게스트로 참석했다. 송솔나무 형제의 연주와 간증을 들은 현지 성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카나이 타츠오 목사(이세키그리스도교회/부실행위원장)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 누구라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 같다”고 했고, 이토 요코 성도(뉴와인스킨그리스도교회)는 연주와 간증에 마음을 빼앗겨 주변 사람들에게 러브소나타에 함께 가자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정현주 통신원



러브소나타 군마 결기대회. 군마 현지 실행위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러브소나타를 기대하고 있다.



기도제목

10월 21일(월): 일본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10월 22일(화): 2000명의 일본인이 참여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10월 23일(수): 스태프와 봉사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10월 24일(목): 교회부흥세미나로 일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10월 25일(금): 러브소나타 출연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10월 26일(토): 일본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게 하소서

10월 27일(주일): 이재훈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결기대회를 마치고

“멈추지 않는 감동의 눈물”

“하나님께서 군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감동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군마지역의 교회들은 교단과 교파의 벽이 높아 초교파적인 교제와 중보기도모임 등이 없었는데 러브소나타 군마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나 되었습니다. 군마를 넘어 일본 구원을 위해 러브소나타를 개최해 준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오제키 키요코(안디옥가스펠처치 마에바시)

“가족에게 러브소나타를”

“아름답고 멋진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러브소나타 군마 결기대회에 참석하면서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평소 드리던 예배와 다른 분위기의 말씀도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러브소나타를 소개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 러브소나타를 준비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 토베 알레(마에바시그리스도교회)

군마에서 만난 믿음의 선배

이수정 선교사와 유아사 지로 장로



이수정 선교사

이수정(李樹廷, 1842~1886)은 개척최초의 한글성서 번역자의 한 사람이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

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쓰다(津田仙)와 친분을 쌓았다. 어느 날, 쓰다의 방에 걸려 있던 한 문으로 쓰인 죽자 가운데 성서에 나오는 산상수훈(山上垂訓)을 읽고 감명을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다.

1883년 4월 29일 동경 노월정교회(露月町教會)에서 야스가와 목사(安川亨)의 집례로 세례를 받고 일본에서 세례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

세례를 받은 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중

심으로 ‘신앙고백서’를 발표, 윤치호의 ‘신앙고백서’와 함께 한국 기독교 초기 신자의 신앙양태를 대표해 주고 있다.

한글성서 번역사업에 착수해 《현토한한신약전서》를 간행했고, 순한문성서인 《신약마가전복음서》를 번역했는데, 이 한글성서가 1885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언더우드(Underwood, HG)와 아펜젤러(Appenzeller, HG) 선교사에게 주어졌다.

유아사 지로(湯淺治朗, 1850~1931) 장로는 이수정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일본 군마현(群馬縣)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정계에 진출 군마현 의원, 중의원 의장을 역임했다.

1914년 일본 조합교회(組合教會)는 총독부로부터 조선을 황민화(皇民化)하기 위해 전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일본 조합교회는 유아사 장로를 중심으로 이 일을 반대했다. 교회가 제국주의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1885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 기독교대회에 참석한 이수정 선교사(앞줄 오른쪽 네번째) 그가 예수님을 영접 하도록 영향을 준 쓰다 센(오른쪽 다섯번째) 그리고 유아사 지로 장로(앞줄 오른쪽 세번째)와 유명한 성서학자 우찌무라 간조(앞에서 두번째줄 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참석했다.

이 일로 일본 최초로 군마현에는 공창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또한 여성교육에도 발 벗고 나

섰다. 당시 일본에서는 여성교육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Blessing Sahara'

NGO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에 새 생명을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세네갈에 머문 지 30년, 하나님께 이끌려 다카르 한인교회에서 사역한지도 벌써 12년째다.

2012년 여름, 서부 아프리카에 불어온 'Blessing Sahara'의 바람을 타고 세네갈에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감비아에서 사역하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님 일행을 모시고 오신다는 소식이었다.

이게 얼마만인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그분이 오신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1978~7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알게 된 김광동 장로가 NGO '더 멋진 세상' 사업을 위해 세네갈에 온다는 소식이었다. 김 장로님과 33년 만에 재회다. 서로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도 세네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 그렇게 NGO '더 멋진 세상'의 사업이 세네갈에서도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본나바마을'

NGO '더 멋진 세상'이 세네갈에서 사업을 전개할 곳은 본나바 마을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동역자를 준비해 두셨다. 우리와 동역할 주인공은 파울로와 루시 선교사 부부다. 그들은 어린 아들 마구엘과 함께 본나바 마을에 들어와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와 함께 본나바 마을에서 질병퇴치, 주거환경 개선,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등을 하기로 했다.

2013년 3월 NGO '더 멋진 세상' 서울 본부에서 두 명의 사역자를 현지로 파송했다. 이제 세네갈에서 사역 중인 NGO '더 멋진 세상'의 팀원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 필자와 파울로 루시 프로젝트 매니저, 순회원 보건팀장, 김수영 교육팀장. 본격적으로 사역에 시동을 걸었다.

세네갈 본나바 마을은 파리에서 다카르까지 이어지는 자동차 랠리가 끝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장맛비 소금 호수 'Lac Rose'가 유명하다. 호수와

대서양 사이를 비집고 들어선 모래톱 위에 3개 마을이 있다.

마을을 다스리는 제1촌장은 Mamouna, 제2촌장은 Baye Balla, 제3촌장은 Assane이다. 이들이 마을의 어른이자 관리자다. 사실 이 세 명의 촌장들은 BA씨 성을 가진 형제들이다. 본나바(Bonaba) 마을은 담수가 흐르는 지역에 사는 BA씨 집성촌이다.

생명 살리는 사업... 첫 열매 '우물'

바다와 소금호수 중간에 위치한 본나바 마을 한



우물공사 전

구석 모래땅에서 생수가 흘러 나와 작은 개천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

본나바 마을은 호수와 해변 사이에 격리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행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말 면장을 만나서 본나바 마을 자원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이



NGO '더 멋진 세상'의 지원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식수공급을 받게 된 주민들.

후에는 상급기관으로 찾아가 군수에게 마을지원 사업을 약속받았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본나바 마을에는 2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기도 수도도 없다. 물은 마을 군데군데 우물을 파서 마시고 있는데 수량이 적어 두레박으

에서 산다. 어린이들이 모래 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살고 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다.

본나바 마을에는 정부에서 지어준 보건소가 없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보건소를 건립했다. 우리는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약 공급, 안과 질환 치료제, 배탈약, 상처 치료제 등을 구입해서 지원했다.

약품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했다. 그래서 마을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40여종의 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무료로 자원 봉사하는 봉사요원들의 생계도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도움으로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다 근본적인 질병퇴치 및 식수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우물공사, 방역, 마을 청소(쓰레기장 건립 예정)를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 열매로 우물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는 방역과 청소, 교육 사업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Blessing Sahara의 바람이 세네갈을 변화시키고 있다.

/ 백원경 지부장(다카르 한인교회 목사)



우물공사 후

로 물을 퍼 올리면 물과 모래가 섞여서 올라온다. 그 흙탕물을 헹궈서 걸러 마시고 있었다.

마시는 물도 물이지만, 빨래는 어떻게 할까? 그들은 우물에서 나오는 적은 양의 물로 식수와 생활용수까지 충당해야 했다. 그러니 항상 물이 부족했다. 우물 공사가 시급하다.

또 이곳 주민의 대다수는 갈대로 엮은 작은 움막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팀원들.

“큰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후원해주고 중보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비를 내면서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은

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돕고 싶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캄보디아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 큰 사랑 받고 돌아가는 소반나린 올림

* 소반나린은 지난 3월 서대문 공동체가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가서 만난 18세 청년이다. 선천적 장애로 다리가 불편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가 심해졌다. 소반나린의 딱한 사연을 들은 NGO '더 멋진 세상'이 청년을 한국으로 초청해 건강을 되찾도록 도움을 줬다.

세네갈 지부 연혁

2012년

- 5월 : NGO '더 멋진 세상' 리더십 세네갈 방문 (김광동CEO, 김창욱본부장)
- 7월 : NGO '더 멋진 세상' 회장 세네갈 아웃리치 / 세네갈 지부설립
- 11월 : 본나바마을(촌장)과 '더 멋진 세상' 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MOU 체결
본나바 현지리더십(아주마) 초청 새마을교육 연수

2013년

- 3월 :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봉사단원 출국 (2명)
- 4월 : 면장 Mr. Diop과 본나바 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MOU 체결
- 5월 : B/W현지사무소&봉사요원 숙소 완공
- 10월 : 우물워터탱크 완공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러 브 소 나 타

群馬



Sonata 군마

2013.11.14(목) 오후 7:00
베이시아문화홀 (군마현민회관)

※ 11월 13일(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군마



Gunma

Main Speaker

이 재 훈 목 사

온 누 리 교 회 담 임 목 사



김영미
(소프라노)



신상우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플룻연주자)



심수봉
(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온누리교회)



니지마학교성가대
(찬양·핸드벨)



박진아작가
(샌드애니메이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

| 주 최 |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 **Onnuri** | 협 찬 | **CGNTV** **Duranno**